

도, 깨끗한 우유 생산·공급 지원

안전한 우유 생산 기반 마련 위한 5개 사업에 29억원·학교 학생 우유 급식에 66억 투자

전북도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우유 생산기반 구축 및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95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최근 음용수 소비 감소, 수입량 증가 등으로 낙농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깨끗하고 안전한 우유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친환경 우유생산 기

반 구축, ▲낙농헬퍼 지원, ▲젖소 대사성질병 예방약품 지원, ▲젖소 부제병 예방약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우유 먹는 습관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에 6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백색우유, 강화우유, 발효우유, 치즈 등으로, 올해부터는 공급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또, 저학년 학생은 저용량(200ml → 100ml 이상) 우유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오는 2026년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가에서는 안전한 우유 생산에 힘써주시고, 소비자는 우리 우유를 많이 이용해주시길”을 당부했다.

/유효상 기자



문 대통령 '박상욱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욱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문현답'(전주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통해 전주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우 예비후보는 4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동학혁명유족회 전주원주지회(지회장 박종호)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 거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혁명참여자 가족 중 명예회복심의위서 발급한 유족통지서를 소지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다.

한편 유족수당은 동학혁명 발상지인 정읍에서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급했다.

김윤상 기자

“경로당 노인회장에 월 5만원 활동비 지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4일 “전주에 있는 각 경로당 시설관리와 공동부식 구입, 회계업무, 코로나19 방역 등의 일을 노인회장이 처리하고 있다”며 “병에 봉사직으로 활동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역시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주에는 600여 개 경로당이 있으며, 어르신들의 컴퓨터와 공동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경로당 1개소 당 한 명의 노인회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인회장은 경로당 책임자로서



이 예비후보는 “전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노후생활을 위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호 도움을 주는 이웃복지 등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경로당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달체계 역할이 중요한 만큼 노인

회장이 부담하는 활동경비 등에 대한 대책으로 각 경로당의 노인회장에 월 5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회장 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인회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정책을 개발·추진해나갈겠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사랑방 역할에만 머물렀던 경로당 이미지를 쇄신하여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공부·놀이방·커뮤니티 공간 등 경로당 별 특화시설을 도입하고, 개방형 경로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사업장 조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역시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

“돌봄센터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도울 것”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독과 건강 상태를 감안한 맞춤형 돌봄 공약을 제시했다.

우 후보는 4일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혼자 생활하면서 오는 외로움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도움을 주겠다고



활동과 문화 활동 등을 돕기로 했다. 또 어르신들의 외출에 동행하고 식사와 청소관리 등 일상적인 일에도 도움

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따로 특별한 관리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으로 나눠 진행하며 사회지원을 꾸준히 전개해 어르신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김윤상 기자

도, 정보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그린PC’ 보급

기증받은 중고PC 정비·사양 높여...1년 무상 A/S제공 29일까지 도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북도가 ‘사랑의 그린PC’ 200여 대를 도내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PC 200여대를 정비하고, 사양을 높여 대상자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PC를 정비 후 정보소의 계층에게 무상 보급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도내 1만여 가구

에 중고 PC를 보급해왔다.

특히, 올해는 PC에 MS오피스뿐만 아니라, 한컴오피스 S/W를 추가해 대상자들의 PC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양은 CPU(i-7 6세대 이상), 메모리(8GB), SSD(256GB), HDD(1TB), LCD모니터(23인치), 윈도우10 운영체제를 갖춰 학습 및 일반적인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

1년간 무상으로 A/S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보급 여부를 검토한 후 7~8월에 선정·보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www.j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디지털 매체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중고 PC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도, 전기차 충전시설 시·군 합동점검 실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 변경 제도 홍보·점검 실시

도 자체 60억 원 예산투입... 개방형 급속충전시설 100기 설치 병행

전북도가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변경된 제도 홍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주간 실시되는 급전 합동점검은 14개 시·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3,333기)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충전구역내 일반

차량의 주차행위, ▲물건적치 등 진입 방해행위, ▲충전시설 및 구획선 훼손행위, ▲충전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그간 도와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에 카드뉴스를 게재하거나, 홍보포스터 부착, 전광판 플래카드 등을 통해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사항을 지속 홍보해 왔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제도 정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합동점검을 통해 도

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용 확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체계 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한편 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돼 있지만, 도는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 60억원을 확보, 추가로 급속충전시설 100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유효상 기자

/유효상 기자

전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소로 647억원 절감

지난 동절기 대비 농장 발생 56%·살처분 92% 감소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조정... 심각 → 주의로

전북도가 지난 동절기와 대비해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살처분 사례가 크게 줄어 직간접 예산 약 647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7건이 발생했고, 32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이는 지난 동절기 당시 16건 발생, 406만 마리 살처분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 건수는 56%, 살처분은 92% 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에 따른 직·간접 예산 절감 효과는 647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살처분 보상금 및 처리 비용이 34억원 발생해 지난 동절기 282억 원 대비 248억원이 줄었다.

또 사료·육류 유통 등 경제손실이

37억원 정도로 추산돼 지난 동절기 436억원 대비 399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73호),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29개소), ▲닭·오리 정밀검사 강화(월 회·2주 회) 등의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발령했던 ‘심각’ 단계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1일자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이 취약한 가금농가는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 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전북도가 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농생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효상 기자

/유효상 기자

섬마을 액화석유가스시설 구축 대상 선정

개야도·어청도·식도·위도 4개섬... 26년까지 총 52억원 투자

전북도가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4개 섬 479세대가 행정안전부 섬 마을 액화석유가스(LPG)시설 구축사업 5개년 계획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해 LPG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개의 섬에는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통(저장탱크)과 개별세대까지 배관망이 설치되고, 각 가정에는 안전시설(가스타이머, 타이머 폭 등)이 보장된다.

이에, 평균 1평군 1달정도의 연료를 상시 보유하고, 겨울철에도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전기에 비해)이 가능해져 시설 구축 후 주택 난

방·취사 비용 최대 25%가 절감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50% 감축하고, 개별 배송시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 예방 등 섬 환경보존이 가능하며, 기존 노후된 난방시설을 교체하고, 가스경보기와 타이머폭 등 안전장비를 보강함으로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구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상시 공급이 가능해지고, 가스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이 보강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4월 맞이 생생일 프로모션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용)은 4월을 맞이 전북생생장터에서 ‘생생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엄선된 전북 14개 시·군 농산물을 한정 수량으로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특가행사다. 우선 생생장터에서는 KBS 6시내고향에 방영된 ‘정음 손맛 연일 청국장’을 특가상품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정판매일 예정이다.

또한 생생장터에 신규 오픈한 흡소핑 코너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도 흡소핑 지원을 받아 대박 행진을 기록한 도내 기업과 전북생생장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흡소핑에서 판매된 특별구성과 행사가격 그대로 전북생생장터 흡소핑 코너에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다.

이월러 전북생생장터 APP 출시 이벤트와 최대 20% 할인 쿠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최대희 기자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